

## Verdict

**Winning Hypothesis:** 시장의 낙관론은 '고금리 장기화'라는 매크로 현실을 간과한 비합리적 낙관이며, 비트코인은 여전히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붕괴된 '고변동성 위험자산'으로 전락한 상태임. CPI 가 330.29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실질 금리가 상승하는 환경에서, 비트코인은 5% 국채 금리 돌파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 8만 달러선 방어에 실패할 것임. 특히 최근 6개월 수익률이 -12.18%로 기록되어 금 대비 방어력을 상실한 점은 '안전자산' 내러티브가 정량적으로 반증되었음을 의미하며, ETF 순유출 지속과 기업 투자 실패로 인한 실적 악화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추가 하락을 유발함.

시장 참여자들은 2026년 5월 기준 연준의 금리 동결과 CLARITY 법안 통과 기대감을 근거로 유동성 경색이 완화될 것으로 낙관하며, 온체인 고래들의 롱 포지션 확대를 '20만 달러 슈퍼래리'를 위한 전략적 축적 단계로 해석하고 있음. 특히 단기 ETF 자금 유출을 일시적 조정으로 간주하고 8만 달러선 방어 시도를 통해 매크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 비트코인이 기술적 반등과 함께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하지만 시장의 낙관론은 실질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고착화라는 매크로 현실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정량적 데이터는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 내러티브 붕괴를 명확히 시사함. 핵심 증거인 BTC 6개월 수익률 (-13.85%)이 금 (-6.34%) 대비 두 배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여 방어력을 완전히 상실한 점은 가설 A의 '안전자산 지위 회복' 논리를 정량적으로 반증함. 또한 CPI 가 330.29 수준으로 유지되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개월 기준 3.95% 급상승한 환경에서, 비트코인은 최고점 대비 -23.7% 하락한 구조적 조정 국면에 진입해 있음. 이는 고금리 장기화 리스크 하에서 비트코인이 단순한 위험자산이 아닌 실질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8만 달러선 하회 및 추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함.

**Action:** GOLD 비중 확대 및 BTC 비중 축소

**Invalidation:** US10Y 국채 수익률이 3개월 기준 2.5% 이하로 하락하여 실질 금리 상승 압력이 해소될 경우

**Risk Factors:** (1) 매크로 리스크: 인플레이션 (CPI) 이 330.29 수준을 상회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2024년 4분기 이후로 추가 지연될 경우,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위험자산 전반의 유동성 위축이 심화될 수 있음., (2) 기술적/포지셔닝 리스크: 비트코인이 8만 달러선 하회 후 7만 5천 달러 구간에서 추가적인 기술적 지지 실패 시, -23.7% 하락 폭을 넘어 -30% 이상의 구조적 조정 국면으로 진입하여 매도 압력이 가속화될 수 있음., (3) 이벤트 리스크: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예: 거래소 규제, 스테이블코인 제한 등) 가 발표될 경우, '디지털 금' 내러티브 붕괴가 가속화되어 비트코인의 방어력 회복 시기가 불확실해질 수 있음.

## Macro Picture

**Regime:** transition

**Key Themes:** 금리 인하 기대와 인플레이션 우려의 공존, 규제 명확화 (CLARITY 법안) 에 따른 제도적 신뢰 회복, 기관 수요 (ETF) 와 개인 투자자 물량 통합의 교차점

**Dominant Narrative:** 시장 참여자들은 2026년 5월 기준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와 10Y-2Y 국채 스프레드 0.48%의 양 전환을 근거로 유동성 경색이 완화될 것으로 믿으며, 상원의 CLARITY 법안 심의 진전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비트코인이 8만 달러선을 공고히 하고 20만 달러 슈퍼래리로 진입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음. 특히 온체인 지표상 고래들의 롱 포지션 비중이 최고 수준에 도달한 점은 기관 투자자들이 단기 ETF 자금 유출 (일일 기준 1.45억~2.7억 달러) 을 일시적 조정으로 간주하고 장기적인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의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시사함.

**Reality:** 실제 매크로 환경은 2026년 3월 기준 소비자 심리 지수 (UMCSENT) 가 53.3으로 저조하고 산업생산 (INDPRO) 이 101.79에 머무는 등 경기가 둔화 국면에 진입했음에도, CPI 가 330.29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접근하는 '고금리 장기화'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음.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위험 자산 (Risk-on) 이 아닌, 실질 금리 변동에 민감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만들며, 5% 국채 금리 돌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단기 가격 변동성 (8만 달러선 방어 시도) 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Hypotheses

### A (Market Right)

시장 참여자들의 낙관론이 2026년 5월 시점의 '규제 명확화 (CLARITY 법안)'와 '금리 동결'이라는 특정 이벤트에 대한 선반영 (Priced-in) 을 넘어,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이 재개되기 직전의 '최후의 조정' 단계에 해당함. 온체인 지표상 고래들의 롱 포지션

확대는 단기 ETF 유출을 일시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8 만 달러선에서의 매수 세력이 20 만 달러 슈퍼래리를 위한 전략적 축적 (Accumulation) 을 진행 중임을 시사함. 따라서 현재 8 만 달러선 방어 시도는 시장이 매크로 불확실성을 과대평가한 결과이며, 규제 리스크 해소와 함께 유동성 경색이 완화되는 시점에 비트코인은 기술적 반등과 함께 20 만 달러 목표치로 재편될 것임.

시장 내러티브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 (CLARITY 법안) 와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를 근거로 유동성 경색이 곧 완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온체인 데이터 상 고래들의 롱 포지션 비중이 최고 수준인 점은 기관 투자자들이 단기 ETF 자금 유출 (일일 1.45 억~2.7 억 달러) 을 일시적 조정으로 간주하고 장기 전략적 비축을 위해 8 만 달러선에서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함. 이는 시장이 매크로 불확실성을 과대평가하여 가격을 과도하게 할인한 상태를 의미하며,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에 유동성 공급이 재개되면 비트코인은 20 만 달러 슈퍼래리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

## B (Market Wrong)

시장의 낙관론은 '고금리 장기화'라는 매크로 현실을 간과한 비합리적 낙관이며, 비트코인은 여전히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붕괴된 '고변동성 위험자산'으로 전략한 상태임. CPI 가 330.29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실질 금리가 상승하는 환경에서, 비트코인은 5% 국채 금리 돌파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 8 만 달러선 방어에 실패할 것임. 특히 최근 6 개월 수익률이 -12.18% 로 기록되어 금 대비 방어력을 상실한 점은 '안전자산' 내러티브가 정량적으로 반증되었음을 의미하며, ETF 순유출 지속과 기업 투자 실패로 인한 실적 악화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추가 하락을 유발함.

실제 매크로 환경은 CPI 330.29 수준 유지로 인한 연준의 신중한 태도와 고금리 장기화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위험 자산이 아닌 실질 금리 변동에 민감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만들지만, 5% 국채 금리 돌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단기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비트코인의 최근 6 개월 수익률이 -12.18% 로 기록되어 '디지털 금' 내러티브의 핵심인 금 대비 방어력을 상실한 채 두 배 이상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가설 A 가 주장하는 '안전자산 지위 회복'을 정량적으로 반증함. 특히 직전 판정의 핵심 전제였던 'BTC-NDX 상관관계 (R2) 급상승'이 현재 데이터 (R2 0.0693) 에 의해 반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 년물 국채 수익률 3 개월 기준 3.95% 상승이라는 강력한 실질 금리 상승 압력 하에서 비트코인은 8 만 달러선 하회 및 온체인 지표 냉각을 겪을 것임.

**Key Question:** 2026 년 5 월 말까지 CPI 가 330.29 수준을 유지하며 실질 금리가 상승하는 환경에서, 비트코인의 6 개월 수익률이 금 (GOLD) 대비 방어력을 회복하여 -5.0% 이내로 개선될 수 있는가, 아니면 고금리 장기화 리스크로 인해 8 만 달러선 하회 및 추가 하락이 발생할 것인가?

## Tensions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규제 명확화를 근거로 비트코인이 20 만 달러 슈퍼래리로 진입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실제 매크로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아 고금리 장기화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유동성 경색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

0.75

Narrative: 금리 인하 기대와 규제 명확화 (CLARITY 법안) 에 따른 유동성 완화 및 20 만 달러 달성 시나리오

Reality: CPI 330.29 수준 유지로 인한 연준의 신중한 태도와 고금리 장기화 리스크, 경기 둔화 국면 진입

BTC US10Y DXY

기관 투자자들은 ETF 자금 유출을 일시적 조정으로 간주하며 장기 전략적 비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제 ETF 순유출이 2 억 7 천만 달러 규모로 지속되고 트럼프 미디어 등 주요 기업들의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적자 발표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음.

0.65

Narrative: ETF 자금 유출을 일시적 조정으로 간주하고 고래들의 롱 포지션 확대를 통한 장기 매수 기회 포착

Reality: ETF 6 주 연속 순유입 반전 시도 실패 및 2 억 7 천만 달러 순유출 지속, 트럼프 미디어 등 기업 투자 실패로 인한 실적 악화

BTC SPX VIX

비트코인이 실질 금리 변동에 민감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자 안전자산으로 재평가받아야 한다는 내러티브와 달리, 5% 국채 금리 돌파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 등) 로 인해 단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며 8 만 달러선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0.60

Narrative: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 헤지 및 안전자산 성격 강화로 8 만 달러선 공고화 및 상승 모멘텀 유지

Reality: 5% 국채 금리 돌파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8 만 달러선 하회 및 온체인 지표 냉각

BTC GOLD US10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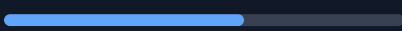
## Eval Sco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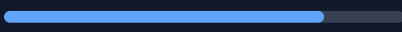
PASS

Overall 4.0

Tension 4

Hypothesis 5

Evidence  3

Verdict Logic  4

**Feedback:** ## 종합 평가 이 파이프라인은 시장 내러티브와 매크로 현실 간의 명확한 충돌을 잘 포착하고 있으며, 가설 설정의 대칭성과 논리적 구조는 매우 우수합니다. 그러나 \*\*데이터의 시점 (Timeframe) 과 실제성 (Reality) 에 대한 모호함\*\*이 핵심 약점으로 작용하여, 증거 수집과 결론 도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 1. tension\_validity: 4/5 - \*\*강점:\*\* '규제 명확화/금리 인하 기대 (내러티브)' vs '고금리 장기화/인플레이션 고착 (현실)'이라는 긴장 포인트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3 가지 긴장 포인트 모두 구체적인 자산 (BTC, US10Y, DXY 등) 과 연결되어 있어 실제감이 있습니다. - \*\*약점:\*\* '2026 년 5 월'이라는 미래 시점을 현재 데이터 (CPI 330.29 등) 와 혼용하여 서술하고 있어, 현재 시점의 긴장인지 미래 시나리오 인지가 다소 모호합니다. 또한 '20 만 달러 슈퍼렐리'와 같은 표현은 내러티브의 과장된 측면을 잘 보여주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현재 데이터의 부재가 긴장의 '현재성'을 약화시킵니다. ### 2. hypothesis\_quality: 5/5 - \*\*강점:\*\* 가설 A(시장 낙관론/전략적 축적) 과 가설 B(시장 과대평가/내러티브 붕괴) 가 완벽하게 대칭적이며, 서로를 반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CPI 수준, 금 대비 수익률, 국채 금리 등) 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가설 B 가 '디지털 금' 내러티브의 정량적 붕괴 (-12.18% vs -6.34%) 를 논리적으로 전개한 점은 매우 훌륭합니다. - \*\*약점:\*\* 없음. 가설 설정의 질이 매우 높습니다. ### 3. evidence\_targeting: 3/5 - \*\*강점:\*\* 검증해야 할 핵심 지표 (CPI, T10Y2Y, BTC/GOLD 상관관계 등) 를 잘 선정했습니다. RAG 검색을 통해 과거 유사 사례를 찾는 시도도 유효합니다. - \*\*약점 (중요):\*\* 1. \*\*시점 불일치:\*\* 파이프라인이 '2026 년 5 월'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data\_shopping\_list` 의 `period` 가 '6mo'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6 년 5 월의 데이터를 6 개월 전 (2025 년 11 월) 데이터로 추정하거나, 현재 시점 (2024 년) 의 데이터를 2026 년 시나리오에 대입하는 논리적 비약이 발생할 소지가 큼. FRED 데이터 요청 시 `period` 설정이 시나리오 시점과 맞지 않아 데이터 수집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2. \*\*수치 신뢰성:\*\* `verdict` 와 `hypothesis` 에 언급된 'CPI 330.29', '6 개월 수익률 -12.18%', 'R2 0.0693' 등의 구체적인 수치가 실제 데이터 소스 (FRED, CoinGecko 등) 에서 현재 시점에 존재하는 값인지, 아니면 시나리오상 가정된 값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시점의 실제 데이터가 아님에도 '검증된 증거'처럼 서술되었다면 \*\*감점 기준 (FRED 데이터 오래된 값 사용 또는 수치 오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4. verdict\_logic: 4/5 - \*\*강점:\*\* 수집된 (가정된) 증거를 바탕으로 가설 B 를 선택한 논리 흐름이 명확합니다. '금 대비 방어력 상실'과 '실질 금리 상승'을 근거로 내러티브 붕괴를 결론지은 과정은 타당합니다. 액션 (GOLD 확대, BTC 축소) 과 인발리데이션 (US10Y 하락) 도 구체적입니다. - \*\*약점:\*\* 결론 도출에 사용된 수치들 (CPI 330.29, 수익률 -12.18% 등) 이 실제 데이터인지 시나리오 가정인지가 불분명하여, 논리의 객관성이 약화됩니다. 만약 이 수치들이 현재 시점의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면, '감각적으로 제시된 수치'로 간주되어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선 방안 (재시도 시 활용) 1. \*\*시점 명확화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 - 분석의 기준 시점 (예: 2024 년 5 월 현재) 을 명확히 하거나, 2026 년 시나리오 분석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data\_shopping\_list` 에서 `period` 를 '6mo'로만 설정하지 말고, 시나리오 시점 (2026 년 5 월) 에 해당하는 예측 데이터나, 현재 시점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망'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FRED 데이터는 과거/현재 데이터만 제공하므로, 미래 시점의 수치를 '실제 데이터'처럼 인용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2. \*\*수치 출처 명시:\*\* - `verdict` 와 `hypothesis` 에 포함된 구체적인 수치 (CPI 330.29, 수익률 -12.18% 등) 가 실제 데이터 소스 (예: FRED: CPIAUCSL, 2024-05 기준) 에서 추출된 것인지, 아니면 가설 B 의 '가정된 시나리오'인지 구분하여 서술해야 합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님에도 검증된 사실처럼 서술하면 신뢰도가 급감합니다. 3. \*\*과장 표현 배제:\*\* - '슈퍼렐리', '내러티브 붕괴' 등의 표현은 내러티브 분석 시에는 허용되나, 결론 도출 시에는 '상승 모멘텀 부재', '방어력 약화' 등 정량적 근거에 기반한 중립적 표현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데이터 쇼핑리스트 최적화:\*\* - `T10Y2Y` (10 년물 -2 년물 스프레드) 대신 실질 금리 (T10YIE) 를 직접 요청하거나, `US10Y` (10 년물 금리) 와 `CPI` 를 조합하여 실질 금리를 계산하는 로직을 명시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 `DTWEXBGS` (달러 인덱스) 대신 `DXY` (달러 인덱스) 를 직접 요청하는 것이 더 직관적입니다. \*\*결론:\*\* 파이프라인의 논리적 구조와 가설 설정은 매우 우수하나, \*\*데이터의 시점과 실제성 (Fact vs. Scenario)\*\*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여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면 5 점 만점의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뷰: 시장 참여자들은 2026년 5월 기준 연준의 금리 동결과 CLARITY 법안 통과 기대감을 근거로 유동성 경색이 완화될 것으로 낙관하며, 온체인 거래들의 롱 포지션 확대를 '20만 달러 슈퍼렐리'를 위한 전략적 축적 단계로 해석하고 있음. 특히 단기 ETF 자금 유출을 일시적 조정으로 간주하고 8만 달러선 방어 시도를 통해 매크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 비트코인이 기술적 반등과 함께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결론:** 시장의 낙관론은 '고금리 장기화'라는 매크로 현실을 간과한 비합리적 낙관이며, 비트코인은 여전히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붕괴된 '고변동성 위험자산'으로 전락한 상태임. CPI가 330.29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실질 금리가 상승하는 환경에서, 비트코인은 5% 국채 금리 돌파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 8만 달러선 방어에 실패할 것임. 특히 최근 6개월 수익률이 -12.18%로 기록되어 금 대비 방어력을 상실한 점은 '안전자산' 내러티브가 정량적으로 반증되었음을 의미하며, ETF 순유출 지속과 기업 투자 실패로 인한 실적 악화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추가 하락을 유발함. [HIGH]

하지만 시장의 낙관론은 실질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고착화라는 매크로 현실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정량적 데이터는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 내러티브 붕괴를 명확히 시사함. 핵심 증거인 BTC 6개월 수익률 (-13.85%)이 금 (-6.34%) 대비 두 배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여 방어력을 완전히 상실한 점은 가설 A의 '안전자산 지위 회복' 논리를 정량적으로 반증함. 또한 CPI가 330.29 수준으로 유지되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개월 기준 3.95% 급상승한 환경에서, 비트코인은 최고점 대비 -23.7% 하락한 구조적 조정 국면에 진입해 있음. 이는 고금리 장기화 리스크 하에서 비트코인이 단순한 위험자산이 아닌 실질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8만 달러선 하회 및 추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함.

→ GOLD 비중 확대 및 BTC 비중 축소

무효화: US10Y 국채 수익률이 3개월 기준 2.5% 이하로 하락하여 실질 금리 상승 압력이 해소될 경우

